

■ 주요 뉴스: 미국 소비자심리 큰 폭 개선. 1년 기대물가는 21개월래 최저

- 일본은행, 다음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 추가 조정 가능성
- ECB 주요 인사, 통화긴축 기조 지속 시사
- Deutsche Bank, '23년 독일경제 전망 상향 조정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소비심리 호조 등이 배경

주가 상승[+0.4%], 달러화 약세[-0.1%], 금리 상승[+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소비자 심리가 2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승 견인
유로 Stoxx600지수는 독일 경제 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긴축 감속 가능성에 따라 소폭 하락
유로화 가치는 0.2% 하락, 엔화는 1.1%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의 낙폭 과대 등을 반영하여 상승
독일은 올해 경제 전망 상향 조정 영향 등으로 소폭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236.6원, -1.9원) 0.2% 하락, 한국 CDS 하락

		1/13일	1/12일	전일대비			1/13일	1/1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99.1	3,983.2	0.40%	국채 금리 10y	미국	3.50%	3.44%	6bp
	유럽	452.54	450.22	0.52%		독일	2.17%	2.16%	1bp
	중국	3,195.3	3,163.5	1.01%		영국	3.37%	3.33%	3bp
	일본	26,120	26,450	-1.25%	CDS 5y	한국	43bp	45bp	-2bp
	한국	2,386.1	2,365.1	0.89%		중국	53bp	54bp	0bp
환율	달러지수	102.19	102.25	-0.06%	위험 지표	EMBI+	-	387	-
	유로화	1.0830	1.0853	-0.21%		VIX	18.35	18.83	-2.55%
	엔화	127.87	129.25	1.08%		WTI유	78.39	78.39	0.00%
	위안화	6.7010	6.7295	0.43%	원자재	구리	422.0	419.7	0.55%
	원화	1.2227	1.2210	0.14%		금	1,920.2	1,897.1	1.2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소비자심리 큰 폭 개선. 1년 기대물가는 21개월래 최저

- 미시건대에서 잠정 집계한 1월 미국 소비심리지수는 64.6으로 전월대비 4.9pt 상승하며 예상치(60.7)를 상회. 소비자들의 현재상황 평가지수는 68.6으로 전월대비 9.2pt 상승(예상치 60.0)했으며, 6개월 이후에 대한 미래기대지수는 62.0으로 2.1pt 상승하는 등 예상치(59.0)을 상회
- 한편 기대 물가상승률은 1년 기대물가가 4.0%로 전월대비 0.4pt 급락하며 예상치(4.3%)를 하회하였고 이는 '21.4월 이후 최저치
- 미시건대는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했으나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으며, 앞으로 글로벌 경제를 좌우한 요인들이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물가가 기초적으로 하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ECB 주요 인사, 통화긴축 기조 지속 시사

- 카자크스 위원, 현재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큰 폭의 실업이 발생하여 깊은 리세션이 발생하는 등 금리인하 배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올해 ECB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 통화정책 결정에 주요 변수는 근원물가로, 최근 근원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라고 분석
- 부이치치 위원 역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긴축기조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때마다 정책을 고려해야하는 것이 현재 시점의 합리적인 선택

■ 일본은행, 다음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 추가 조정 가능성

- 장중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0.545%까지 상승하여 YCC 밴드 조정 이후 처음으로 상단(0.5%)을 상회함에 따라 다음주 통화정책 회의(17~18일)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
- 일본은행은 장마감 이후 16일 추가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매입 규모는 시장여건에 따라 결정될 예정

■ 인민은행,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두지만,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자제

- 쉬안창닝 부총재, 사회 전반적으로 수요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정책을 집행할 예정이나, 합리적인 수준을 지향하기 위해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을 방침. 성장 촉진과 물가 안정 사이의 균형을 지향
- 은행들이 신용공급의 규모와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며, 물가 기조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면밀히 모니터링 예정.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기업 대산 채권 파이낸싱, 임대주택 대출, 주택 프로젝트 완공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을 연구

■ Deutsche Bank, '23년 독일경제 전망 상향 조정

- 당초 '23년 독일경제가 마이너스 성장(-1.0%)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고 중국의 봉쇄조치 완화로 인한 무역 개선 기대 등으로 0% 성장할 것으로 전망 수정
- 한편 독일 통계국은 '22년 독일 경제가 전년대비 1.9% 성장했다고 발표. '21년 성장률(2.6%)에는 미치지 못하나, 예상치(1.8%) 상회. 통계국은 지난해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악화와 인플레이션에도 독일 경제가 선방했다고 평가

■ 엘런 미 재무장관, 연방정부 부채한도 19일께 도달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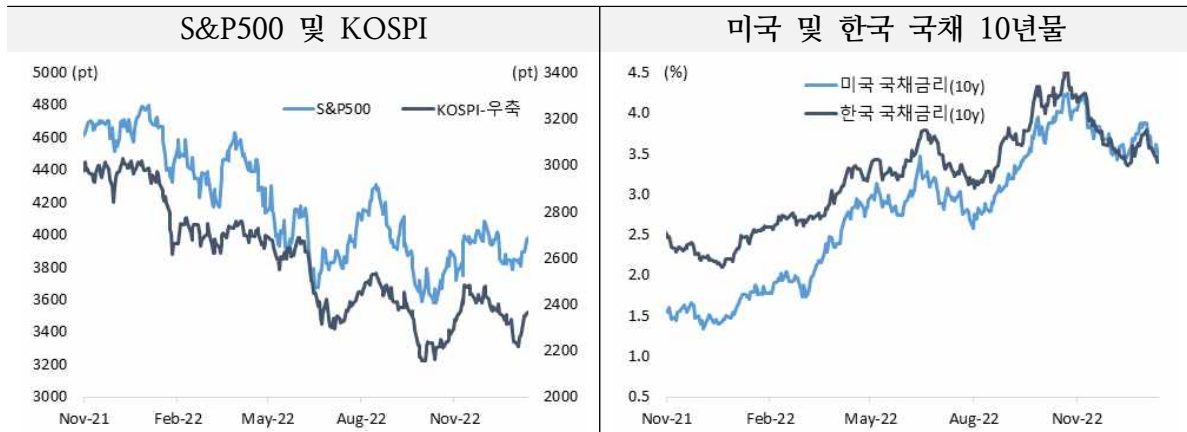
-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연방정부 부채 잔액이 19일 한도 도달이 예상된다고 언급. 재무부는 디폴트를 회피하기 위해 비상수단 가동 방침
- 비상수단으로는 일부 공적기금에 대한 기존 투자를 회수하거나 신규 투자 중단을 고려하고 있으며, 재무부 현금과 비상수단을 사용하면 6월까지의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6 현지시각 기준)

- 일본 '22.12월 생산자물가, 중국 '22.12월 주택가격지수
- 유로그룹 미팅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053, E-mail jchwang@kcif.or.kr